

G20 정상회의, 기후변화와 자유무역을 아젠다로

- 파리기후협정을 탈퇴한 미국정부의 귀추가 주목되는 동시에 선진국의 유엔기후변화협약(UNFCCC)상 (금융 지원) 의무 이행의 중요성 재강조
- 한-러 경제 협력 (북극항로, 극동 개발, 에너지 등)의 미래 성장동력 확보 기대

- ▶ 기후변화, 자유무역 및 북한의 도발 등을 주요 의제로 '17년 7월 8일 독일 함부르크에서 정상회의 마침
- ▶ 자유무역 지지와 파리기후협정의 충실한 이행을 강조하는 폐막성명 발표
- ▶ 한-러 정상회담에서 블라디보스톡 자유항과 러시아 극동지역 선도 개발구역내 한국기업의 진출 환영 의사 밝힘
 - 북극항로를 활용한 자원개발 및 시베리아 횡단 인프라 사업 등에 보다 많은 한국 기업이 참여해주길 희망
 - 블라디보스톡에서 열리는 제3차 동방경제포럼('17.09.06.)에 문 대통령 초청

자료1 : 조선일보 ('17.07.09.)

노-핀 북극권 연결 철도 건설 타당성 평가 착수

- 북동항로, 자원 개발, 관광, 수산업 등 북극 지역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시점에서 북극 철도 건설은 북극 지역의 경제적 활동에 큰 이익을 줄 것으로 전망

- ▶ 핀란드 라플란드 로바니에미(북극권 바로 남쪽) - 노르웨이 키르케네스 (바렌츠해 연안)까지 건설 계획 (약 550km)
 - 노르웨이의 국유 기업인 '베인 NOR (Bane NOR)'가 담당할 것으로 예정
- ▶ 핀란드는 북극이사회 의장직을 수행하는 동안 시행하기로 한 간판 사업 중 하나
 -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새로운 무역 경로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
- ▶ 당국은 노르웨이 철도 당국과 협력하여 북극 철도 건설의 타당성 검토 예정
 - 핀란드-노르웨이의 평가는 2018년 2월 28일까지 마무리 예정

자료2: The Independent Barents Observer ('17.07.07.)

한-미 정상회담 성과: 한국가스공사와 알래스카 에너지회사 MOU 체결

- 이번 MOU는 기존 사업 파트너인 Energy Transfer and Shell (루이지아나), Sempra Energy and Woodside Petroleum (텍사스) 및 ExxonMobil (텍사스)를 포함한 석유 메이저와의 사업에 활용될 것으로 예상됨

- ▶ 한-미 정상회담 결과, AGDC(알래스카가스라인개발회사)와 한국가스공사 MOU 체결('17.06.30.)로 알래스카 자원개발의 핵심인 교두보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
- ▶ AGDC는 가스를 지역과 국제시장들로 이전하는 데 필요한 인프라 개발을 통해 알래스카의 광대한 북부 해안 유전지역 천연가스 자원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권한을 부여 받은 알래스카 주의 독립 공공 기업
- ▶ 협력 체계의 아젠다에는 프로젝트 투자, 개발, 운영, EPC 및 엔지니어링 등 포함
- ▶ 알래스카 LNG 사업은 알래스카 지역과 아시아 LNG 시장 간의 LNG 공급가능 통합 배관망 연결 및 LNG 설비투자를 포함한 사업으로 2023~2025년 첫 공급 예정
- ▶ 이번 MOU로 인해 한국가스공사는 알래스카 LNG에 투자할 뿐 아니라 프로젝트 개발과 자금조달의 모든 측면에 참여 기회 확보

자료3: Alaska Dispatch News ('17.07.07.)